

민주,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돌입

전북은 내달 15일 원광대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총집결, 막판 지지층 결집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8월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차기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며, 향후 당 운영과 2028년 총선 공천, 2030년 대선 전략을 이룰 새 지도부가 결정되는 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당대표 선거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으며, 최고위원 선거에는 최민희·김용·김영호·사미하·한민수·이성운·박진원·임기애(기호순)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호남권, 수도권 순으로 진행

된다. 각 권역에서는 합동연설회와 함께 관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가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8월 17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된다. 충청권 경선은 8월 1일 열린다. 오전 10시 충남 공주시 충남교통연수원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충북 경선이, 오후 5시에는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대전·세종 경선이 이어진다. 영남권 경선은 8월 2일 진행된다. 오전 10시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로 시작으로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오후 5시에는 창원대학교 가운홀에서 경남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이어 8일에는 제주와 인천 경선이 치러진다. 제주는 오전 10시 해리티크 제주에서, 인천은 오후 4시 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 8월 9일에는 강원과 대구·경북 순

회 경선이 열린다. 강원은 오전 10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대구·경북은 오후 4시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권역별 연설회가 진행된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 경선은 8월 15일 실시된다. 오후 1시에는 전남·광주 합동연설회가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며, 이어 오후 5시에는 전북 권역 합동연설회가 익산시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전북 경선은 전국 당원대회를 이룰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9만 4천여 명이나 되어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총집결해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권은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만큼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당 운영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순회 경선은 8월 16일 수도권에서 열린다. 경기는 오전 10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서울은 오후 4시 고양시 키크스 제2전시장 9A홀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권역별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넘어 향후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민주당원은 물론이고 전 국민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당 혁신과 조직 운영은 물론 2028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2030년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 전략을 주도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권 경쟁이 예비경선 단계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당내 통합과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날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제13대 도의회 새 출범·비전 담겼다

도의회 소식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95호 발간
5분 발언·도정 질문·조례 현장 이야기 등 수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가 지난 24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6 여름호(제9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비전과 의정 방향을 비롯해 제426회·428회 임시회 주요 의정 활동, 제12대 의정 결산 등이 구성됐다. 특히 '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희수 의장과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들의 취임 메시지와 13대 의회 의원 44명의 다짐을 수록해 새로운 의회의 출발과 각오를 소개했다. 이번 호에는 제·개정 조례 22건도 함께 실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등이 소개됐으며, 건의·결의문으로는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역 희생 보상 및 국가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 등 2건을 담았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예·확대'와 잠재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북형 고유가 대응 대책' 필요 등을 다뤘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과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민화로 구성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에세이는 최근 국보로 승격된 '남원 광한루의 야경'을 담았

고, 동행 전북 코너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가족과 함께 즐기 좋은 '전북 해수욕장'을 소개했다. 또한 특별기고를 통해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앞으로의 4년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갈 의정 방향과 역할을 조망했다. 이외에도 2026년도 전북자치도의회 소식지 연간 기획 코너인 '조례, 도민을 만나다'에서는 조례가 실제 민원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주제로 마을 세무사, 경찰 등을 직접 만나 조례시행 이후 달라진 현장의 모습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생생하게 담았다. 해당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돼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행물편집위원회 조은희 위원장은 "제13대 도의회가 새로 출범한 만큼 생생한 의회 소식을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소식지를 통해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과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 구독 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www.jstacouncil.jeonbuk.kr) 또는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오만호 기자

‘인구·상권·선순환’ 전북 농어촌기본소득 ‘삼중효과’

장수·순창·진안·무주군
인구유입 4202명, 가맹점 늘어
가맹점 61% “경영에 도움”
지역 내 원자재 구매율도
올해 1분기 대비 7% 증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가맹점 증가라는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급된 391억원 가운데 73%가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등 선순환 구조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상권이다. 사업 선정 전 4097개소였던 가맹점은 6월 말 4566개소로 469개소 늘었다. 이 가운데 67개소는 새로 문을 연 점포로, 읍 지역 41개소와 함께 그동안 상권이 취약했던 면 지역에도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6개소가 들어섰다. 인구도 움직였다. 6월 말 기준 장수군 1399명, 순창군 2175명이 새로 전입했고, 6월 추가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에서도 각각 398명, 230명이 유입돼 4개 군에서 모두 4202명이 늘었다.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지역화폐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과 현지 정착의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급 실적은 6월 말까지 4억3642명, 391억원이다. 이 중 73%인 288억원이 지역 안에서 쓰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69억원(24%)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 39억원(14%), 주유소 27억 원(9%)이 뒤를 이어 생계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주민·가맹점주 1,283명이 참여한 2분기 설문에서도 반응은 긍정적이었



보건복지부 우수지자체 '전주' 현장방문

지난 24일 전주시청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지훈 전주시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다. 기본소득이 거주와 사회서비스, 사립 사이의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고, 1분기 '보통·높음'에 머물던 답변이 '매우 높음'으로 옮겨가며 체감도가 뚜렷해졌다. "같은 서비스라면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기겠다"는 응답도 61%였다. 가맹점에서는 전체 결재액의 36%가 기본소득으로 이뤄졌고, 6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새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60%였다.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재 비중은 41%로 읍 지역(20%)의 두 배를 웃돌아 소외지역일수록 효과가 컸다.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들인다는 비율도 51%로 1분기보다 7%p 올라 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 군과 전북 연구원, 대학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

본소득 협의체'를 운영하며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볼품·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왔다. 분기별 설문과 간담회, 현장 점검, 사용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수군은 'RED-FOOD 직구마켓'과 '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고, 한남기에는 문화·복지 콘텐츠를 장터와 결합한 '행복싸움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쓰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유등사회적협동조합,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키워 농산물과 육류를 배송·판매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지원'으로 면 지역 창업을 유도해 왔다. 8월에는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손잡은 '온정장터'와 기아에서 지원받은 차량으로 식품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연다. 민선1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과 무주군은 7월 중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대상 인구의 59%인 2만 8,418명(진안 64%, 무주 54%)이 접수를 마쳤다. 두 군은 8월 중 실거주 확인을 거쳐 7~8월분을 소급 합산해 8월 말 첫 지급에 나선다. /오만호 기자

“각자의 자리서 군산 미래 위해 힘 모으겠다”

김재준 군산시장·김영일 시의원, 경선 고발 건 상호 취하
조건 달지 않아... “새만금 현대차 투자 결실 위해 역량 하나로”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지난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서로 제기했던 고발 건을 모두 취하했다. 김재준 시장과 김영일 의원은 지난 22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24일 군산경찰서에 각각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은 취하다. 김재준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지역과 시민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화에 응해 준 김영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일 의원도 화답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금 군산 앞에는 새만금과 현대차 투자라는 기회가 놓여 있다. 이 기회를 결실로 만들어내려면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 화합과 군산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군산=김만호 기자

미장동 J 민간임대아파트 임대 만료 후 분양전환 난항

군산시의회, 입주주민들 의견·애로사항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김경식)과 사 선거구 의원(김효주, 오승철, 윤신애) 일동은 지난 24일 10층 민원접견실에서 미장동 소재 J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분양전환과 관련한 입주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J민간임대아파트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비대위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및 입주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설명했다. 이어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입주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제기된 사항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경식 경제건설위원장장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입주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권익과 공정한 절차를 최우선으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 등 민생과 연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도의회, 의회 입법평가위 내부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제13대 의회 출범에 맞춰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조례 정비를 전담할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제13대 의회 전반기 개원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내부 위원(도의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당면적인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창 위원장을 비롯해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송재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한준희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영자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진형석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총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임기



는 이날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특히 이번 제13대 의회부터는 기존 외부 전문 기관에 의존하던 용역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의회 내부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자체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통해 외부 용역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실무 중심의 밀도 있는 조례 분석과 실효성 높은 입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만호 기자

익산시, 민선 9기 첫 정기인사 단행

88명 승진·283명 전보

익산시가 지난 24일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 △균형과 배려 △공정과 투명성이라는 3대 핵심 원칙 아래 엄격하게 이뤄졌다. 인사 규모는 국장급인 4급(서기관) 3명과 과장급인 5급(사무관) 10명을 포함해 총 88명이 승진했으며, 283명이 새로운 보직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와 가장 큰 특징은 최정호 시장이 강조해 온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다. 시는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역량을 인정받은 핵심 인력을 시장 전면

전진 배치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등 날로 커지는 신산업 행정 수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능한 우수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이를 통해 익산 대전을 이룰 미래 신산업 정책을 실무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대적인 탕평·균형 인사도 돋보인다. 시는 그동안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외됐던 기술직 등 소수 직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해 승진 명단에 올렸다. 이는 직렬 간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조직원의 사기를 끌어올려 상생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리적인 조치다. /익산=이재훈 기자